



김 정 향

하늘에는 북채로 두드리기만 하면 금시라도 쟁쟁 소리가 날것 같은 은쟁반같은 달이 떠있었다. 그래서인지 달빛이 유난히도 밝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어두웠다.

나는 피로운 마음을 안고 오래도록 합숙앞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있었다.

《현심아, 축구경기가 시작됐어.》

합숙의 한호실동무들이 나를 찾는 소리였다.

텔레비존에서는 벌써 며칠째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소식이 방영되고있었다.

오늘은 결승경기소식이여선지 호실동무들모두가 텔레비존앞을 떠날줄 모른다.

호실안에서는 벌써 야-야- 하며 경기에 심취된 합숙생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의자에 앉아 굳어진듯 일어설념을 못했다. 열띤 그들의 목소리가 나를 더욱 괴롭혔던것이다.

나는 어디론가 계속 가고있는 달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문득 그 달속에서 멀리 고향집에 있는 동생의 얼굴이 보였다. 아니, 달전체가 그의 얼굴이었다. 이어 비웃는듯 한 동생의 목소리가 울렸다.

《언닌 지금 피로와하지? 그래서 조국의 명예를 걸고 경기장에 나선 자기 동창생을 외면하지? 언닌...》

나는 두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렇다. 나는 축구가 어렵고 힘이 든다고, 처녀 시절 입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공원과 유원지가 아니라 땀에 젖은 운동복을 입고 눈비가 와도 훈련장에서 살아야 하는 그것이 두렵고 싫어서 스스로 축구선수가 되기를 저버린것이다.

눈은 감았지만 지금도 중학교(당시)를 졸업할 때 체육단으로 함께 가자던 동창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현심아, 함께 가, 응? 우리 축구로 조국을 빛 내이자고 약속하지 않았니.》

누구의 말이었던가.

나와 딱친구인 수정이의 말이였다.

그는 중간방어수였고 나는 공격수였다. 그러나 공격이 시작되면 이상하게도 그는 공격수가 되어 나와 발을 맞추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쌍둥이공격수라고 했다.

이런 우리가 서로 갈라지게 된것은 졸업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그날 학교에서는 졸업반학생들을 위해 즐거운 등산을 조직하였었다.

경치좋은 고향의 명승지를 돌아보면서 졸업기념식수도 하고 자체로 밥도 지어먹으며 오락회도 하는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해오는 재미있는 등산이였다.

학급동무들은 벌써부터 설레이며 사진기를 준비한다, 맛있는 음식감을 준비한다, 시와 노래를 맞추어본다 하며 흥성이고있었다.

그러나 축구소조원들인 나와 수정이는 갈수가 없었다.

전국적인 파외체육학교 축구반학생들의 경기가 있던것이다.

결국 학급동무들이 야영길을 떠날 때 나는 수정이와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기분이 상한 나는 훈련에 전념하는 수정이에게 물었다.

《수정아, 우리가 축구선수가 되거나 할걸 가지구 이러는지 모르겠다.》

《...》

나는 비물처럼 떨어지는 땀을 훔치며 수정이를 돌아보았다.

그도 땀에 푹 젖어있었다.

《너 이쯤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는게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여간... 이게 뭐니? 울리뛰구 내리뛰구. 온통

땀에 젖구… 도대체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나는 제만의 청춘시절의 희망에 대해 운운하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그렇게 헤어졌던 수정이가 지금은 어엿한 축구선수가 되어 방어수로 활약하고있다.

나는 이미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경기를 보며 그를 알아보았던것이다.

아, 수정이는 끝내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리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조국의 장한 딸, 영웅이 되었구나.

내가 바라던 청춘시절의 희망과 수정이가 이룩한 청춘시절의 희망이 어떻게 차이나는가를 나는 이제야 알게 된것 같았다. 그래서 더욱 텔레비존앞으로 가지 못하는 나였다.

이윽고 축구경기가 끝났는지 언니처럼 따르는 호실장이 기쁨에 넘친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다.

《현심아, 우리 선수들이 1등을 했다. 얼마나 장하냐.》

《…》

《너 그 축구선수 동창생때문에 그러니? 너무 괴로와말아. 난 네 마음을 알아.》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한동안 나를 지켜보더니 내곁에 앉았다.

잠시 밤하늘을 쳐다보던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저 별들을 좀 봐. 얼마나 많니.

난 저 별들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처럼 느껴져.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저 별들처럼 나도, 현

심이 너도 아니,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다 빛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불타는 애국심과 아름다운 이상,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가고 또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용맹과 기상을 떨치며 청년강국의 주인공, 선군청년전위로 살고있니.

난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해.》

《내가 꽤 해낼가요?》

《그렇지 않구. 우리도 너자축구선수들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꾸나. 그래야 네가 수정이라는 동창생을 뿔뿔하게 만날수 있지.》

그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와요.》

나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난 꼭 해낼테다. 한번 잘못 내짚은 걸음을 한탄만 하며 주저앉는다면 수정이와의 거리는 천리만리로 멀어질것이다.

더 많은 천을 짜서 수정이처럼 조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청년영웅이 되어야 한다.

그때에야 나는 수정이와 동창생이었다고 뿔뿔하게 말할수 있다.》

나의 결심을 알아듣기라도 한듯 밤하늘의 별들은 반짝이며 나를 축복해주었다.

(동대원구역 새살림고급중학교 학생)